

日작가와 광주 14세 아이들 일상속 '경계' 찾기

광주비엔날레 '찾아가는 현대미술 스쿨 프로그램' 총장중 수업 현장

시타미치 꿈 이야기로 시작
삶 속 창조적 발상 등 소개
꿈·경계...학생들 남긴 글
기획 끝난후 전시 등 계획

22일 광주 총장중 진학진로 상담실. 14살, 중 2 아이들이 일본 작가 시타미치 모토유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2년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했던 그는 몇년 전부터 14살 아이들과 함께 '주변의 경계선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아이들의 꿈과 아이들이 생각하는 '경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이 쓴 글을 작품화하는 기획이다.

이번 행사는 (재)광주비엔날레가 올해 처음 기획한 '광주비엔날레 찾아가는 현대미술 스쿨 프로그램'이다. 총장중과 윤림중 학생 100여명은 두 시간씩 '14세와 세계와 경계'를 주제로 작가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생동감 있었다. 아티스트가 학교에 찾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작가가 외국인이라는 점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가 먼저 자신의 꿈과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자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이날 프로젝트는 작가의 '꿈' 이야기로 부터 시작했다. 작가는 그가 노트에 손으로 쓴 소원들을 영상으로 보여줬다.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 돈을 잘 버는 고고학자, 마을에서 좋은 곳에 집을 짓는 것.' 올해 서른 일곱이 된 그가 8살 때 노트에 적어두었던 '꿈'이다. 8년 전 어머니가 우연히 창고에서 이 노트를 발견해 그 역시 어릴 적 꿈을 다시 들여다보며 '현재'의 모습과 비교해 보게 됐다고 했다.

이어 14살의 자신에 대해 들려줬다. '슬램덩크'를 좋아해 농구를 열심히 했고, '좋아하는' 무언가를 늘 꿈꾸었던 시절



22일 광주 총장중에서 열린 '광주비엔날레 찾아가는 현대미술 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본의 시타미치 모토유키 작가가 '14세와 세계와 경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들에 대한 이야기다. 참가 학생들도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메이저 리그 야구 선수, 경찰, 군인, 애니메이션 사업가, 제빵사, 돈많은 백수 등등 아이들의 꿈은 다양했다.

시타미치는 자신의 사진 작품을 예로 들며 창조적인 발상과 늘 접하는 '일상'에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작가의 '일일화기' 시리즈는 아마추어 화가였던 할아버지의 그림이 걸린 공간들을 찾아가는 프로젝트였다.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그림을 어떻게 받았는지 사연을 듣고 집이나 가게 어딘가에 걸려 있는 모습과 현재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한장'의 사진에 담았다.

또 하나는 '어머니의 풍경' 시리즈. 장모님이 주방 살림살이 뚜껑을 자주 잃어버려 제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뚜껑을 대응하는 걸 2년 반 정도 찍었고, 전시회도 가졌다.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발견한 '창의성'이다.

"일상생활에서 보면 창조적인 일들이

많아요. 어떤 친구가 꿈이라고 말한 제빵사도 창조적인 일이지요. 아티스트로서 가장 부딪힐 때는 저의 작품을 보고 누군가가 감동을 받거나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각기 다른 안경을 끼고 자신만의 안경으로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창조적인 것은 평범한 일상에서 전혀 다른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2교시에는 아이들에게 질문지가 주어졌고, 직접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이 혼자서 혹은 친구들과 간 가장 먼 곳', '자신이 가장 가고 싶고 가장 좋아하는 곳', '가장 친한 사람(친구, 가족, 동물 등)', '장래의 꿈',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존재하는 경계선' 등의 질문이다.

"14세 중학생은 어른과 어린 아이의 경계, 중간 영역에서 흔들리는 나이입니다. 불안정한 시기이고 문제아들도 많지요. 어른다운 의견을 낼 때도 있지만 어릴 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답을 할 때도 있어요. 어른이 되면 다양한 일들이 당연하게 느껴지게 마련이지만 14세 중학생들은 다양한

일들에 의문을 느끼고 매일 매일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진행할 당시에는 아이들이 쓴 내용을 골라 폐교에서 전시회를 가졌고, 동의를 받아 일본 신문에 정기적으로 게재했다. 정치, 국제, 사회 등 신문에 실린 커다란 이슈 가운데 '14세 아이들의' '사소한 목소리'를 신는 건 의미있는 작업이었다. 아이들에게는 학교 수업이 커다란 세계와 연결돼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신문을 보는 어른들은 자신이 아이였던 시절, 강렬하게 세계를 바라본던 감각을 되찾아 때론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감동받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싶는데 광주에서는 한계가 있죠. 아티스트, 그것도 외국인 아티스트와 통역가가 함께 하는 프로젝트에 아이들이 많은 흥미를 보이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 주제 역시 학교에서 다루고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이라 도움도 되구요. 아이들이 스텝 없이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보고 조금 놀라기도 했어요."

프로그램을 신청한 총장중 정철화 진로 진학교사는 "비엔날레가 앞으로도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아이들이 기록한 내용들은 2주간의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점에 일괄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전시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을 만날 계획이다. 작가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 일본의 아이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경계선에 대해 전화, 사복과 교복,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동물과 키워서는 안되는 동물, 동생과 나눠 쓰는 방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줬었다.

무사시노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시타미치 모토유키는 2012년 비엔날레에 참여했고 '눈에술사'를 수상했다. 현장 연구에 기반한 간행물로 유명한 그는 4년간 일본 일대를 여행, 격투기 격납고 등 군사적 구조물들의 잔재를 조사하고 사진을 찍었으며 'Bunkers Series'로 출간하기도 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섬유예술가 정예금 개인전



'Winter' I III

12월 30일까지 큐브갤러리

그녀의 작품은 한곳에 지긋이 머물며 보는 것도 좋지만 좌우 앞뒤로 조금씩 옮겨가며 감상하면 훨씬 흥미롭다. 위치에 따라 안개꽃의 흐드러짐도, 버들의 흐느적거림도, 불꽃의 아름다움도 각기 다른 모습과 색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작품(천) 위에 구현된 다양한 작품들은 얼핏 평면회화로 보이기도 하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작가의 치열한 수고와 덧입혀진 독특한 조형미가 인상적이다.

섬유예술가 정예금 개인전이 오는 12월 30일까지 화이트 큐브 갤러리(광주 서구 매일동)에서 열린다.

'Beyond the window'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지역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다양한 기법의 섬유 예술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특히 다양한 색으로 염색된 천의 작업물에 여러 색 천들을 겹쳐 박음질 한 다음 다시 베어내는 기법으로 제작한

작품들이 눈에 띈다. 이 기법으로 제작한 'Winter' 시리즈는 북유럽의 어느 숲속을 연상시킨다. 사선으로 박음질하고 베어낸 자국들과 쪽 뺀 나무, 눈길 등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새벽 풍경을 연출한다. 또 다양한 천을 구부러 '의도된 우연성'을 연출한 작품과 얇은 거즈를 활용한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신작 '투영' 시리즈는 아크릴 미러(mirror)를 활용해 전시 제목처럼 '창 너머'의 풍경 이미지를 담아낸 작품이다. 버들, 안개 등 자연에서 품어온 소재를 다양한 색감으로 표현해낸 작품으로 액자 사방에 유리를 부착, 보는 위치에 따라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조선대 응용미술학과와 대학원 산업공예학과(섬유 전공)를 졸업한 정 작가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금상, 베이징 국제 섬유비엔날레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15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관람시간 낮12시30분~오후 8시30분. 매주 수요일 휴관. 문의 062-385-033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정찬주 작가 북 콘서트...24일 보성군 문화예술회관

전남도청 홈페이지에 '이순신의 7년'을 3년째 연재하고 있는 보성 출신 정찬주(사진) 작가의 북 콘서트가 24일 오후 2시 보성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주제는 '임진왜란과 보성 이야기'.



기세를 쐬는다. 정 작가는 "보성 열선루에서 열린 이순신의 장계와 600석의 군량미 확보가 없었다면 명량 해전의 승리도 없었을 것"이라며

정 작가는 이번 북 콘서트에서 임진왜란의 역사에 있어서 보성을 왜 성지 중의 성지라고 하는지 이유와 관점을 들려줄 예정이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은 삼도수군통제사에 재임명된 이후 보성 조양창에서 군량미 600석을 확보하고, 열선루에서 선조가 수군을 해체하라는 어명을 내리자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습니다'라고 불복의 장계를 올려 조선수군 재건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명량 해전에서 대승을 거두고 왜군의

서 "보성의 가치를 소실시켜 상상력과 역사적 사실을 가미해 이야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성 출신의 정 작가는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했으며 장편소설 '산은 산 물은 물', '소설 무수소', '천장에 비친 달', '단군의 아들'과, 산문집 '암자라 가는 길', '정찬주의 다인기행' 등을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창제작 음악극 '푸른 수염의 시간' ACC 예술극장 24일·25일 공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연 연습실에서 '푸른수염의 시간' 공연을 연습중인 출연진. <ACC 제공>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제작한 음악극 '푸른 수염의 시간'이 오는 24일 오후 7시30분, 25일 오후 3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열린다.

'푸른수염의 시간'은 샤를 페로의 동화 '푸른 수염'과 이를 토대로 한 벨라 바르토크(Bela Bartok, 1881~1945)의 오페라 '푸른 수염의 성'에서 영감을 얻어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이다. '푸른 수염'은 비밀스런 과거에 대한 아내의 호기심과 그 섬뜩한 비밀을 담고 있는 문들을 다루고 있다. '푸른 수염의 시간'은 원작동화 '푸른 수



이상록 유형민

염'의 줄거리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일곱 개의 문으로 표현한 인간 세계의 존재론적 속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작품에서 등장하는 '일곱 문'은 인류 문명의 일곱

가지 속성이나 단계, 혹은 영혼의 성장상을 상징한다.

'푸른 수염의 시간' 공연에서 가장 중심축이 되는 것은 소리다. 한국 전통 악기와 서양 악기, 사람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소리는 움직임(무용) 및 빛(조명, 영상, 미술)과 함께 무대를 이룬다.

특히 이번 공연은 ACC 가변형 극장1의 특색을 한껏 살린 무대연출과 공간 활용이 돋보인다. 로드형 무대를 기본으로 두 개의 돌출무대를 붙인 듯한 새로운 무대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무대와 관객으로 구분되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했다.

'푸른 수염의 시간'은 광주음악협회 협력제작으로 진행됐다. 광주음악협회 피아노분과 위원장 이상록이 예술감독, 작곡가, 피아니스트로 참여하며 성악분과 위원장 소프라노 유영민도 출연진으로 참여한다. 더불어 임선경(연출), 조운주(작가), 신재희(미술감독)이 제작진으로 참여하고 장광호·카루소(의상)가 의상디자이너 및 제작을 맡았다.

또 이아람, 여성룡, 지박, 김승철, 이형철, 조은희, 장은나, 김보수, 김재승가 출연한다. 전석 2만 원. 문의 1899-5566. /전은재기자 ej621@kwangju.co.kr

전남문화관광재단 24·25일 '문화파출소 여수' 행사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문화파출소 여수'에서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문화파출소 반상회-월.동.준.비'라는 주제로 기획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문화파출소 반상회'는 지난 1월 개소한 문화파출소 여수에서 한 해 동안 운영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동사진과 교육 결과물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할 계획이다. 24일에는 '월.동.준.비'를 키워드로 기획한 체험 프로그램(여수막걸리 보습비누, 파곤한 진저

레몬티 만들기 등), 25일에는 가족이 함께 일회용품으로 꼬마병정을 만드는 '뚜덕뚜덕 파출소'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문화파출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이 주최하고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유류공간인 치안센터를 주민들의 문화 사랑방으로 조성하여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남에서는 여수시에 위치한 '안산치안센터'가 유일하다. 문의 061-921-5655. /박성천기자 skypark@



신양파크호텔 가을여행

기간 · 9월 1일 ~ 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100,000 / 디럭스룸 ₩110,000

객실박 + 조식인 + 사우나인 (조식인 추가시, ₩15,000)

